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전만환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 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 (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 280-2238

제978호 〈주간〉 1991년 5월 13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양캠퍼스 총궐기투쟁 선포

교수 정부의 미봉적 태도 비판등 시국성명서 발표

2만여명 서울·성남일대서 시민과 가두시위 전개 학생

강경대군 사망 이후 계속적인 정권퇴진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교수 35인의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양캠퍼스 학생들의 서울·성남 일대에서의 가두시위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9일 노천극장에서 '민자당 완전 해체와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자주경회 1차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약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단대·과 상황 보고, 기간 투쟁 보고와 향후 투쟁전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재해 사진전도 함께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명동성당 구국대단식에 참가하고 있는 황분이(지리·4)총학생회 학술부장등의 육성녹음과 5월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선동대 공연이 있었으며, 총학생회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이 혈서를 쓰기도 했다.

한편 학생들은 집회를 마친 후 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 학생들과 함께 동대문까지 가두선전전을 벌였으며 서울역과 종로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0일에는 본교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와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함께 '민자당 완전해체와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명동성당 단식투쟁 보고에서 김용석(사학·3)군은 "6일부터 12인의 학우가 단식투쟁에 돌입, 매일 3차례에 걸친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7인의 단식 결사대가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후 학생들은 회기사거리까지 가두선전전을 펼쳤으며 명동성당 지지방문을 가졌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외국어 교육관 앞 민주광장에서 '3인 열사정신계승 및 5월9일 동맹휴업총궐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다음날인 9일에는 거의 모든학과가 과총회및 학년총회를 거쳐 동맹휴업에 참여한 가운데 약1천여명의 학생들이 성남 시내로 나가 '천세용 열사 장례식 및 5·9 민자당 타도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성남에서는 2시부터 천세용 열사의 노제가 열렸으며 5시부터 '노래마을' '용성총련 문화패'등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등이 있었다. 이후 7시부터 열린 국민대회에서는 용성총련 소속 약7천여명의 학생과 '성남을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일동'등 총2만여명이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등을 외치며 자정이 넘을때까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정훈(행정·4)총학생회 사무국장은 "투쟁의 열기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받아온 노태우 정권도 이제 말기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

한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우주과 60여명의 학생과 환경학과 20여명의 학생도 학생회관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한 도정일(문리대·영문)교수등 35명의 교수들은 지난 8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시국 성명서에서는 '우리 대응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정략적 미봉책에 머물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백골단 해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등을 호소했다.

조영식 총장

명예인문학박사학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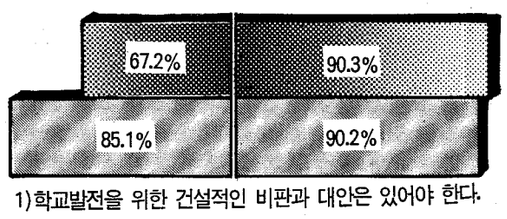
조영식총장은 지난 12일 오후2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아르헨티나 빨레르모대학 총장 포포브스키 박사로부터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문예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빨레르모대학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교와는 작년 5월 자매교류를 체결한 대학으로서 작년 가을학기부터 조영식평화학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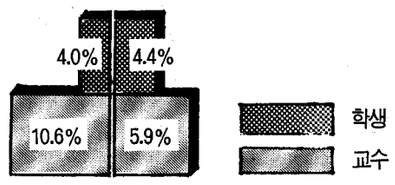
본보 창간36주년 기념 설문조사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본보가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10면〉

지난 7, 8일 양캠퍼스 교수및 교직원, 학생등 총 6백명을 무작위로 추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SPSSPCT통계가 가능한 512명의 응답지를 분석, 처리한 것이다.



1)학교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은 있어야 한다.



2)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치부는 가려야 한다.

〈학교당국 보도〉 〈총학생회 보도〉

교심위 강사 추천안 확정

'현대사회와 과학'등 5개 교양 과목

서울캠퍼스 91학년도 2학기 교수충원과 강사추천 계획을 교무과와 총학생회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가 각각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교심위는 2학기 22개 교양과목중 '현대사회와 과학'등 5개과목에 새로 강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교심위는 현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과목과 추천강사는 다음과 같다.

▲역사학입문-도면회 ▲민족문학론-고미숙 ▲현대사회와 과학-안재구 ▲여성학개론-이승희 1강좌, 강남식 2강좌 ▲성과사회-이승희

이번 강사추천의 결정권은 해당과목 학과장과 단대 학장에게 있게 된다. 또한 2학기 강사추천과 함께 진행되는 교수충원 계획은 현재 과에서 최종 올라온 17명의 교수들에 대해 학교측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일간지 공고등 구체적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유전공학 심포지움

본교 유전공학 연구소(소장 권신한)는 오는 17일 체육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제3회 유전공학 심포지움을 갖는다.

권신한 본교 유전공학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한문희(한국 과학기술원 유전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씨의 '비핵활성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외에도 시카고 대학의 Kan Agarwal교수, 노현모(서울대)교수, 변시명(한국과학기술원)교수 및 구현숙(연세대)교수의 학술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수원 사서과 장서비치 공간 부족

중앙도서관 완공만이 근본적 해결책

수원캠퍼스 도서관 운영이 중앙도서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장서를 감당치 못하고 일부 장서들이 창고에 쌓이는등 보관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달에 약 1천5백여권에서 2천5백여권 정도의 신간도서가 매달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대와 외국어대의 도서관 확충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앙도서관의 건립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수원캠퍼스 도서관의 총장서 보유권수는 약17만권 정도로 공과대학관 도서관과 외국어교육관 도서관에 각각 분리 수용되어 있다.

이에따라 현 보유장서 17만권중 약 2만여권 정도가 창고에 쌓여져 보관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서관 사서과는 "현재의 공간으로 늘어나는 장서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신간이 늘어나는 만큼 창고에 쌓이는 책의 양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의 조속한완공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중앙도서관의 공사는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연내 공사 재개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서관의 장서구입은 각과의 요청에 의해서 도서구입 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도 구입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대학도서관의 수준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시 모든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수원 졸준위 촬영일정 확정

오늘부터 체과대 108강의실서

수원캠퍼스 졸업준비 위원회는 91학년도 졸업준비금 납부및 졸업생 인물촬영일정을 확정했다.

졸업준비금은 앨범제작비 3만8천5백원, 기념품 9천원, 졸업장케이스 1천5백원, 적립금 1천원을 합하여 총 5만원으로 오는 17일까지 경리과에 납부하면 된다.

졸업준비금 납부 영수증은 각 과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영수증 미 수령자는 졸업준비 위원회에서 재발급 받으면된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는 위 기간내에 졸업준비금을 납부치 않으면 납부자 총수를 기준으로 앨범이 제작되므로 추가수납과 앨범제작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촬영은 오늘부터 17일까지이며, 개인촬영은 체육과학관 지하 108강의실에서 실시한다.

한편 세부적 촬영일정은 과별로 추후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캠퍼스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0일까지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졸업준비금은 수원캠퍼스와 동일하며 가을학기에 졸업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2학기 등록시에 납부하면 된다.

"어머니…" 영화상영 경찰과 마찰없이 끝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7일 공과대학관 시청각실에서 학생운동을 주제로한 16㎜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했다.

1시30분부터 2차례에 걸쳐 상영된 이 영화는 1천여명의 학생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화상영시 학원침탈을 당한 서울캠퍼스와는 달리 경찰과의 마찰없이 영화상영을 마쳤다.

노조 대의원총회 무산

각 직종별 마찰로 내분상태

본교 노동조합이 각 직종간의 갈등으로 김종원 노조 사무국장이 사퇴함에 따라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대의원 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직종간의 첨예한 마찰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한편 노동조합내 환경·관리직은 지난11일부터 현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회 개최가기능하다.

대동제 행사계획서 접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사무국은 이번 대동제 기간중 각단과대, 학과, 동아리 등의 행사계획서를 접수한다.

각 단과대, 학과등 기구간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기획서 접수는 행사의 취지,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세부 계획서를 오는 14일까지 총학생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큰뜻속의 작은실천"

캠퍼스 표정

우리들의 작은 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객체가 모여 조직을 이루듯 조그만 실천으로부터 우리의 대의는 완성되리라.

〈지난 9일 노천극장앞 '故 강경대열사 장례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에서〉 〈방현기記者〉

제2회 대학주보 詩문예 현상 작품 공모

No. 1

구포에서

도살장의 소울음이
구지봉을 넘어 가는 노을 빠알갛게
적셔놓은날
선착장을 떠나가는 막배의 구석에서
행상 아주머니의 구겨진 이마를 훔쳐
보며
열 여섯의 나는 떠나가고 있었다

10×20

제1회 대학주보 詩문예 현상공모 당선작 '구포에서'中에서 이선이 作(당시 국문4년)

"이제 詩를 쓸 때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다가갈
당신의 詩를 기다립니다

당선작에 상금 25만원과 장학금 전액

▲응모기간:1991년 5월21일까지
▲응모부문: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응모자격: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원고제출처:서울 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 편집실(구내전화 2056)
▲심사위원:추후발표(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입상작 발표:6월3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입상작 처리
1)당선작 1편:상금 25만원과 상패 및 다음학기 장학금 전액
2)가작 2편:각 상금 12만원과 상패 및다음학기 장학금 30만원
3)입선작 3편:대학주보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및 상패

대 학 주 보 사